

## 하근찬 소설에 나타난 한(恨)의 세계

The World of Resentment in the Novels by Ha Geun-chan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하근찬의 5·60년대 주요작품을 한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50년대 소설에 보인 하근찬의 정한(情恨)의 세계는 한 단과 설움으로서의 한으로 분류된다. 이들 소설에서는 한 맺힘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60년대 소설에 와서 하근찬은 정한의 극복을 위한 서사를 시도한다. 그것이 원한(怨恨)으로서의 한을 축으로 한 소설들이다. 이들 소설들은 한 맺힘과 풀이하는 구조는 이원대립항을 근간으로 한 서사이다.

## I. 서론

전후의 부당성을 고발해 오던 전후의 대표적인 작가인 하근찬은 1957년 〈수난이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하근찬의 문학세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등단 후 1970년 무렵까지의 시기로 주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 무렵부터 80년대까지로 볼 수 있는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일제 말기를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 시기는 일상생활의 인정 세태나 전통적 정서의 소중함을 강조한 작품들로 모아지는데 대개 80년대 이후에 해당한다.

전후 작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하근찬 역시 한국전쟁이 갖는 비극적 의미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근찬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적 슬픔 혹은 한이 나의 문학의 저류이고, 그것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것이 나의 소설적 목표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1)</sup>. 여기서 하근찬이 말한 슬픔 혹은 한은 비극의 세계와 다르다. 현세적 삶의 고난이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절망적으로 만들 때 이를 비극으로 부른다면, 그 고난이 즉자적인 상태로 침전되어 슬픔으로 응어리질 때는 한이 되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혹한 수난을 치러야 하는 그의 토속적 인간상들에게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한국적인 한의 가락을 느낄 수 있다<sup>2)</sup>. 말하자면 그는 한국의 땅에 밀착되어 있는 ‘한의 작가’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5·60년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하근찬 단편 소설에 나타난 한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50년대 소설과 정한(情恨)의 양상

하근찬이 50년대에 발표한 소설 가운데 주목을 요하는 작품은 〈수난이대〉, 〈나룻배 이야기〉, 〈흰 종이수염〉 등이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한의 양상은 ‘정한(情恨)으로서의 한’이다. 먼저 〈수난이대〉라는 작품은 역사의 거대한 조류에 휘말려 불구자가 된 두 부자의 상봉 장면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들 진수는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불구자가 되어 돌아왔고, 진수의 아버지는 자식의 불행을 한탄한다. 이렇게 두 부자는 자신들의 불행을 아파하고 닳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운명에 체념한다. 체념의 감정은 원(怨), 탄(嘆)을 거친 후에 오는 감정이고, 좌절, 상실을 가져다 준 상대방을 원망해도 쓸 데 없다, 또 무력한 자신을 한탄해도 쓸 데 없다, 모두가 쓸 데 없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오는 감정이다. 이들에게서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원(怨)이라든지, 억울한 심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원(冤)도 발견할 수 없다. 있다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는 ‘탄(嘆)으로서의 한’이다<sup>3)</sup>.

59년에 발표한 〈나룻배 이야기〉에 나타난 한의 구조는 정한(情恨)으로서의 한’이다. 전쟁에 끌려나간 두철이는 눈이 하나요, 코가 대추같이 녹아 붙었고, 귀도 한 개는 고사리처럼 되어 마을에 나타난다. 사공 삼바우는 두철이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준다. 삼바우는 세상 살이에 한스러운 일을 많이 겪은 나머지 두철이의 처지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두철이의 한은 삼바우에게 전이되어 집단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전쟁에 끌려가 불구가 되는 현실은 비단 두철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철이가 대자적 퇴행성으로서의 탄(嘆)의 감정을 소유했다면, 이를 보는 삼바우는 일시적으로 대타적 공격성으로서의 ‘노여움’을 가져보나 이 또한 불

가항력적인 체념을 동반한 한탄이 되고 만다. 이는 하근찬이 그려낸 세계가 농민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라 하겠다.

59년에 발표한 <흰 종이수염>에서 보여지는 한은 '설움(悲哀)로서의 한'으로 규정할 수 있다. <수난시대>에서의 아버지는 아들과의 일체감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나 <흰 종이수염>의 아버지는 자신이 걸머진 식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외팔을 마다않고 생활전선에 나선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아버지는 '가난'이라는 멍에를 벗어나고자 남들의 놀림을 받는 광대로 살고자 한다. 전통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는 동길이의 아버지는 설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한을 견뎌내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하근찬의 50년대 소설은 충족될 수 없는 대리 보상을 구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상실감을 소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운명의 힘에 좌절되는 '정한(情恨)의 한'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 2. 60년대 소설과 원한(怨恨)의 양상

하근찬의 50년대 소설이 한탄과 설움에 기초한 '정한(情恨)'의 세계를 보여주었다면, 60년대 소설은 이원 대립에 입각한 '원한(怨恨)'의 세계를 보여준다. 50년대와 달리 하근찬은 정한의 숙명성을 탈피하여 한 맺힘의 근원을 찾아내고, 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63년에 발표한 <왕릉과 주둔군>은 우리 민족의 한 맺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왕릉이 대대로 이 땅에 내려오던 전통적 가치로 볼 수 있다면, 주둔군은 외래적인 것, 침략적인 것, 즉 이질적인 근대를 상징한다. 이 소설은 외래문화가 일방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회의 역사적 필연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당혹감과 혼란상을 담고 있다.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서양 병정이 주둔하면서 마을은 황폐해진다. 급기야 박첨지의 딸 금례가 집을 나가서 서양 병정의 아이를 낳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박첨지는 치유할 수 없는 원한의 근원이 주둔군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하근찬의 50년대 소설이 한의 근원이라 할 거대한 힘의 존재를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면, <왕릉과 주둔군>은 한 맺힘의 근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맺힘에서 풀음으로 이르는 과정이 적극적인 가치를 띠지 못한 것은 이 작품의 한계이다.

61년에 발표한 <분>에서 보여지는 한은 원한의 감정 그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덕이네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한숨을 쉬러 온 사람의 전형으로 제시된다. 열 일곱의 나이에 서방이 돌림병으로 죽고, 청승이 된 덕이네는 다시 서방을 얻는데 이마저도 북해도 탄광으로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이제 덕이네에 남은 것은 호덕이 뿐이다. 그런 그녀에게 호덕이의 징집영장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소망을 앗아가는 운명의 불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한은 "관샘보살, 관샘보살,,,,,"처럼 한이 깊으

면 원도 깊은 '원(願)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맺힌 한을 풀기 위한 '원한(怨恨)의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김열규에 의하면 '한 풀이(解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완과 화해로서의 긍정적 풀이이며, 다른 하나는 '복수로서의' 부정적 풀이라고 한다<sup>4)</sup>. 덕이네는 자신의 한 맺힘이 면장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그로 인해 면사무소 앞에 똥을 싸놓는다. 다소 소극적인 부정적 풀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결론

하근찬의 5·60년대 주요작품을 한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0년대 소설에 보인 하근찬의 정한(情恨)의 세계는 한탄과 설움으로서의 한으로 분류된다. 이들 소설에서는 한 맺힘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60년대 소설에 와서 하근찬은 정한의 극복을 위한 서사를 시도한다. 그것이 원한(怨恨)으로서의 한을 축으로 한 소설들이다. <왕릉과 주둔군>, <분>, <붉은 언덕>에서 보여준 한 맺힘과 풀이라는 구조는 이원대립항을 근간으로 한 서사이다. 이들 소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미약한 민중들이야말로 한 맺힘의 주체이자 한 풀이의 주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풀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양상을 띤 것은 하근찬 소설이 갖는 한계이자 5·60년대 소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김복순, '이질적인 근대' 체험의 비판적 서사화-하근찬론,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pp.323-324, 1998.
- [2] 천이두, 어둠 속에서의 눈뜬, 현대문학, p.140, 1985.4.
- [3]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pp.22-23, 1993.
- [4] 김열규, 검은 원령(怨靈)의 한, 동서문화, p.83, 1978.3.